

선 생 님 을 위 한 영 문 법 ②

시제와 상

열두 칸 밖에서

영어에 시제는 둘뿐이다. 그러면 앞으로 올 상태는 무엇으로 그리는가.

시제와 상 — 열두 칸 밖에서

선생님을 위한 영문법 ②

판형	215 × 285 mm · 2도(먹 · 주묵)
판면	150 × 235 — 본문 100 · 사이 8 · 방주 42
본문	Noto Serif KR 8.5pt · 자간 -8% · 행간 2.05
원문	영어 EB Garamond

이 책이 파는 원전 가운데 어니언스와 네스필드는 저작권이 풀렸다. 여는 법까지 부록 B에 적었다.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London: Swan Sonnenschein. 제3판 1911. 3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London: Macmillan. 1898(5부 편성)

W. Croft,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현행 저작물이므로 인용 한도 내에서만 든다**

차례

제 1 부 · 열두 칸과 두 시제

01	열두 칸은 정의를 곱한 것이다	5
02	그런데 같은 쪽에 「둘뿐」이라고 적혀 있다	16

제 2 부 · 상을 그린다

03	상이란 무엇인가	27
04	두 차원은 수직이다	38
05	도해는 단순화인가 필요충분인가	49

제 3 부 · 의지의 법

06	가정법은 의지의 법이다	60
07	조동사는 세 구실을 한다	74
08	조건문은 셋이 아니라 둘이다	88
09	가정법은 어디에 쓰이나	105
10	형태로는 법을 가릴 수 없다	118

제 4 부 · 앞으로 올 상태

11	영어에 미래시제라는 칸이 없다	130
12	앞쪽을 맡는 일곱	143
13	같은 낱말이 두 법이다	155
14	뉘앙스를 그림에서 볼 수 있는가	166

제 5 부 · 준 동 사

15	부정사는 두 곳에서 왔다	178
16	여격이 또 지워졌다	190
17	형태가 없어서 뜻이 옮겨 붙는다	204
18	동명사와 분사, 그리고 목적격 + 부정사	216

부 록

A	부호와 범례	228
B	원전 자료	235
C	도해 모음	242
D	남은 질문	252

제 1 부 · 열두 칸과 두 시제

01

열두 칸은 정의를 곱한 것이다

좌표 메타 — 격자화 · 인용 5개소 · 도해 7점 · 짜임 7

① 교실의 장면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③ 무엇이 잘렸나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⑤ 매핑 위의 자리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⑦ 한장 요약

① 교실의 장면

"선생님, 12시제표는 누가 만들었어요?"

답이 없는 물음이 아니다. 답이 있고, 그 답이 오래 안 알려졌을 뿐이다.

그리고 학생은 그 표를 이렇게 만난다.

	단순	진행	완료	완료진행
현재	write	am writing	have written	have been writing
과거	wrote	was writing	had written	had been writing
미래	will write	will be...	will have...	will have been...

열두 칸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칸마다 이름이 있고 이름마다 용법이 있다. 학생이 외울 것은 열둘 × 용법 몇 개다.

이 표는 1898년 한 사람의 책에 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 표는 정의를 곁한 결과로 나온다.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②-1 시제의 정의가 둘을 한 낱말에 묶는다 ★★★

Tense defined.—Tense is the form assumed by a verb (by means of inflexion or with the help of Auxiliaries) for indicating either (a) **the time in which an event occurred**, or (b) **the degree of completeness ascribed to an event at the time of its occurrence**

번역

시제의 정의. 시제란 동사가 (굴절로써, 또는 조동사의 도움으로) (a) 사건이 일어난 시간, 또는 (b) 사건이 일어난 그때에 그 사건에 부여되는 완결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취하는 형태다

[강조는 인용자]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110

1898년 판

원서 48쪽

원문 영어

연결문 — 한 낱말이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정의에 적혀 있다. 그리고 이 정의는 ①권 08장 ④-7이 다른 책 (§ 168)에서 옮겨 온 것과 같은 뼈대다. 같은 저자가 두 책에서 같은 정의를 준다.

②-2 그리고 넷을 곱한다

To each tense there are four different forms:— I. Indefinite; which denotes Present, Past, or Future time in its simplest form; **the degree of completeness is left indefinite ... II. Continuous; ... is still continuing, and is not yet completed ... III. Perfect; ... is in a completed or perfect state ... IV. Perfect Continuous; which combines the meanings of the two preceding forms.**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111
1898년판
원서 48-49쪽
원문 영어

번역

각 시제마다 네 가지 형태가 있다—I 부정. 현재·과거·미래를 가장 단순한 꼴로 나타내며 완결의 정도는 정해 두지 않는다… II 계속. 사건이 아직 이어지고 있고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III 완료. 사건이 끝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IV 완료계속. 앞 두 형태의 뜻을 합친 것.

연결문 — 세 시제 × 네 형태 = 열둘. 곱셈이 여기 있다. 그리고 넷의 이름이 완결의 정도로 매겨져 있다 — 정해 두지 않음 · 안 끝남 · 끝남 · 합침.

그런데 판이 돌이고 저자가 열 해 뒤에 고쳤다 ★★

같은 책의 두 판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쪽·같은 절에서 세 자리가 다르다. 둘 다 원서 48쪽 § 110-§ 111이다.

	1898년 판(5부 편성)	1908년 판(6부 편성)
§ 110 (a)	the time in which an event occurred	the time in which an event occurs
§ 110 다음	The verb may tell you	As regards the question of time, the verb may tell you
§ 111 첫 줄	To each tense there are four different forms	To express the different degrees of completeness there are four different forms to each tense

1908년 판이 나중이다. 표제지의 연도가 그렇고, 출판사가 그렇게 적어 두었다 — 「음성학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라 여섯째 부가이 책에 더해졌다」.

부록 B-3

열 해 사이에 저자가 세 자리를 고쳤고, 셋이 다 같은 방향이다.

occurred ▶ occurs 때를 과거에서 일반으로
 + As regards ... time 「이제부터 시간 이야기다」를 밝힌다
 § 111 첫머리에 완결의 정도 곱셈의 둘째 항을 표제로 끌어올린다

→ 왼쪽에서 오른쪽 — 시간

정의가 두 가지를 묶고 있다는 것을 저자 자신이 알고 있었다.

1898년 판은 (a)와 (b)를 나란히 놓기만 했고, **1908년 판은 둘을 갈라**

표시했다 —

시간 쪽에 「시간에 관해서는」을 붙이고, 완결의 정도 쪽을 § 111의 표제로 올렸다.

그리고 그 고침은 어느 판에서도 안 옮겨졌다.

오늘 교실에 오는 것은 표이지 § 110·§ 111의 문장이 아니다.

②-3 표가 그 곱셈이다

원서 49쪽에 Do의 능동 직설법 활용표가 놓인다.

		1인칭	2인칭	3인칭
현재	Indefinite	do	doest / dost	does
	Continuous	am doing	art doing	is doing
	Perfect	have done	hast done	has done
	Perf. Cont.	have been doing ...		
과거	Indefinite	did	didst	did
	...			
미래	Indefinite	shall do	wilt do	will do
	...			

셋 × 넷이 인칭으로 다시 펼쳐진다. 오늘 교재의 표는 인칭을 접고 열두 칸만 남긴 것이다.

②-4 어니언스도 정의를 준다 — 그런데 수가 다르다 ★★★

Of all the Tenses now in use in English, **two only are Simple, i.e. are expressed by means of a single word—namely, the Present and the Past** (*I write, I wrote*). **Around these two the whole elaborate system of Tenses has been built up.**

번역

오늘날 영어에서 쓰이는 모든 시제 가운데 단순한 것은 둘뿐이다. 곧 한 낱말로 나타내어지는 것이니, 현재와 과거다(*I write, I wrote*). 이 둘을 둘러싸고 저 정교한 시제 체계 전체가 세워졌다.

연결문 — 같은 해에 가까운 두 책이 시제를 세는 수가 다르다. 네스필드는 열둘을 표로 만들고, 어니언스는 둘을 세고 나머지를 「세워진 것」이라 부른다.

②-5 그리고 어니언스는 왜 세워졌는지를 적는다 ★★

So long as the language remained simply a means of expressing thought in speech for everyday purposes, these two tense-forms **were adequate enough, as the various shades of time, present, past, or future, could be readily indicated by means of adverbs or adverb-equivalents.** But **when language began to be committed to writing, ambiguities would arise, which, with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the thoughts to be expressed, made a more elaborate and accurate system of tenses necessary.** Sentences which might be perfectly understood when spoken were not intelligible when written. Therefore we find ... **a number of Compound Tenses coming into use.**

번역

언어가 그저 일상의 말로 생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머무는 동안에는 이 두 시제형이 넉넉했다 — 현재·과거·미래의 시간의 여러 결을 부사나 부사상당어로 쉽게 가리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이 글로 적히기 시작하자 모호함이 생겨났고, 나타내려는 생각이 점점 복잡해진 것과 더불어 더 정교하고 정확한 시제 체계가 필요해졌다. 말로 하면 완전히 이해될 문장이 글로 쓰면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 복합시제가 여럿 쓰이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본다.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118.1

원서 107쪽

원문 영어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118.2

원서 107-108쪽

원문 영어

연결문 — 시제 체계는 글과, 글에 실리는 생각의 복잡함에서 자랐다. 원인이 하나가 아니다 — 저자가 둘을 함께 적는다. 10장 ②-3 의 § 208 각주와 같은 말이다 — 「말할 때는 억양이 의심을 남기지 않는다」.

②-6 그리고 그 조동사들이 뜻을 잃었다

certain short verbs of common occurrence, **when used in connexion with certain Verb-Nouns and Verb-Adjectives, have lost their independent meaning and have become mere signs of Tense.** Thus, 'he **will** come' meant originally 'he is willing or determined to come'.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118.3

원서 108쪽

원문 영어

번역

흔히 쓰이는 몇몇 짧은 동사는 어떤 동사적 명사-동사적 형용사와 함께 쓰일 때 제 독립된 뜻을 잃고 한낱 시제의 표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he **will** come'은 본디 '그는 올 뜻이 있다, 또는 오기로 마음을 정했다'를 뜻했다.

연결문 — 07장 ②-1 이 § 195에서 읽은 그 뜻이다. **will**은 「결의하다」였다.

③ 무엇이 잘렸나

③-1 표는 옮겨지고 정의는 안 옮겨졌다

원전	정의(§ 110)	×	넷(§ 111)	=	표
오늘					표만

곱셈이 사라지고 곱한 결과만 남았다. 결과만 있으면 왜 열둘인지를 물을 수 없다 — 열둘은 그냥 열둘이 된다.

①권 12장 이 「通則(통칙)에서 特殊(특수)로」로 보인 것과 같다.

①권 12장 ⑤

다만 여기서는 **잘린 것이 조항이 아니라 정의다.**

③-2 정의가 묶여 둔 둘이 안 갈린 채로 왔다 ★

정의는 (a) 시간 또는 (b) 완결의 정도 라고 둘을 적는다. 그런데 이름은 하나다 — 「시제」.

(a) 시간	현재 · 과거 · 미래	표의 세로
(b) 완결의 정도	단순 · 진행 · 완료 · 완료진행	표의 가로

표의 두 축이 정의의 두 항이다. 그런데 학생은 열두 칸을 한 종류로 배운다.

①권 16장 ④-1 이 세운 「질문 둘」 이 여기서 근거를 얻는다.
물어야 할 것이 둘인 까닭은 정의가 둘을 묶었기 때문이다.

③-3 「둘뿐이다」 가 안 옮겨졌다

어니언스는 단순시제를 둘로 세고, 나머지를 「그 둘을 둘러싸고 세워진 것」 이라 부른다. 오늘 교재는 열둘을 나란히 준다.

	몇을 세 나	나머지를 무엇이라 부르나
어니언스 § 118.1	둘	세워진 체계
네스필드 § 111	열둘	—
오늘 교재	열둘	—

그런데 네스필드도 「둘」 이라고 적어 두었다. 그것이 02장 이다.

③-4 「왜 생겼나」 가 안 옮겨졌다 ★

§ 118.2가 원인을 적는다 — 글이다.

말할 때	부사가 시간을 가리킨다	two forms alone
쓸 때	부사가 없으면 모호하다	ambiguities would arise
	▶ 복합시제가 생긴다	

시제 체계가 언어의 성질이 아니라 글과 그 생각의 복잡함에서 나왔다는 것이 안 옮겨졌다. 그래서 오늘 학생은 열두 칸을 영어의 뼈대로 배운다.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④-1 곱셈을 되돌린다

시제 = (a) 시간	또는 (b) 완결의 정도	§ 110
└─ 셋	└─ 넷	§ 111
셋 × 넷 = 열둘		원서 49쪽 표

표를 지우지 않는다. 표 위에 두 축의 이름을 적는다.

④-2 그러면 표가 격자가 아니라 곱셈이 된다

	완결의 정도	→			
	단순	진행	완료	완료진행	
시간					
현재	●	●	●	●	
과거	●	●	●	●	
미래	●	●	●	●	

칸이 열둘인 것이 아니라 축이 둘인 것이다. 그리고 축이 둘이면 물음도 둘이다 —
언제인가, 어떤 모양인가.

①권 16장 ④-1의 질문 둘이 정확히 이 두 축이다.

④-3 어니언스의 샘과 겹쳐 놓는다

네스필드	열두 칸을 만든다	셋 × 넷
어니언스	둘을 세고 나머지는 세운 것	I write · I wrote
	└─ 그리고 왜 세웠는지를 적는다	글로 쓰면 모호하다
		§ 118.2

두 사람이 같은 자료를 놓고 다르게 센다. 한 사람은 결과를 표로 만들고, 한 사람은
뿌리를 세고 내력을 적는다.

⑤ 매핑 위의 자리

표의 두 축이 이 책의 두 차원이다.

표	이 책
세로 — 시간	시간 차원
가로 — 완결의 정도	상태 차원

정의가들을 묶었고, 표가 그들을 축으로 펼쳤다. 그러니 표는 이미 이 책의 매핑과 같은 모양이다—다만 칸으로 굳었을 뿐이다.



잠정 가로축이 정말 하나인가는 04장 이 판정한다.

Croft는 그 자리를 **두 차원**으로 본다— q (질적 상태)와 t (시간).

이 장은 표의 두 축을 그대로 옮겨 놓는 데까지다.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⑥-1 표를 지우지 않는다

열두칸 표는 유용하다. 시험에도 나오고 교재에도 있다. 바꿀 것은 표가 아니라 표 위의 한 줄이다.

가로 = 어떤 모양인가 세로 = 언제인가

⑥-2 정의를 첫 시간에 준다

시제 = 언제인가 + 어떤 모양인가
한 낱말이 둘을 가리킨다 1898년의 정의

정의를 주면 열둘이 외울 것에서 세는 법으로 바뀐다.

①권 16장 ⑥-5의 「목록을 절차로 바꾼다」와 같다.

⑥-3 두 물음으로 칸을 찾게 한다

I have been writing.

언제인가?	지금까지	▶ 현재
어떤 모양?	계속 + 완료	▶ 완료진행
		현재완료진행

칸 이름을 외우지 않고 두 물음으로 짓는다.

⑥-4 「왜 열둘인가」에 답해 준다

셋 × 넷 이라서 열둘이다.

그 셋과 넷을 이렇게 갈라 표로 짤 것이 1898년의 한 사람이다.

체계 자체는 그 전에 자랐다.

§ 118.2

표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그리고 어니언스는 둘로 쪼갠 것도 함께 준다.

⑥-5 판서 — 1분 40초

	어떤 모양인가	→
	단순 진행 완료 완료진행	
언제		
현재		
과거		
미래		
		▼

빈 격자를 그리고 학생이 채운다. 채우는 동안 두 축이 손에 익는다.

⑦ 한 장 요약

열두 칸 표는 곱셈의 결과다. 1898년의 정의가 시제를 「(a) 시간 또는 (b) 완결의 정도」

둘로 적었고, 같은 책이 각 시제마다 네 형태를 세웠다. 셋 × 넷 = 열둘.

그런데 표만 옮겨지고 정의는 안 옮겨졌다. 정의가 없으면 열둘은 곱셈이 아니라 목록이 되고, 목록은 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표의 두 축이 정의의 두 항이라는 것도 함께 사라졌다 — 세로가 시간이고 가로가 완결의 정도라는 것.

같은 시기의 다른 문법가는 다르게 했다. 어니언스는 「단순한 것은 둘뿐」 이라 하고 나머지를 「그들을 둘러싸고 세워진 체계」라 부른다. 그리고 왜 세워졌는지까지 적는다 — 말로 하면 이해될 문장이 글로 쓰면 알아들을 수 없어서다.

시제 체계는 영어의 뼈대가 아니라 글과 그 생각의 복잡함에서 자란 것이다.

그것도 안 옮겨졌다.

제 1 부 · 열 두 칸 과 두 시 제

02

그런데 같은 쪽에 「둘뿐」 이라고 적혀 있다

좌표 메타 — 잘린 단서 · 인용 7개소 · 도해 7점 · 짜임 6

① 교실의 장면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③ 무엇이 잘렸나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⑤ 매핑 위의 자리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⑦ 한장 요약

① 교실의 장면

01장 의 학생이 한번 더 묻는다.

"선생님, 그럼 영어에 시제가 열두 개예요?"

교사가 망설인다. 어디선가 「영어에는 시제가 둘뿐」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과 열두 칸 표가 어떻게 같이 서는지는 배운 적이 없다.

열두 칸 표 교재에 있다
「시제는 둘」 어디선가 들었다
 둘을 이어 주는 말은 없다

둘은 서로 다른 책에서 온 말이 아니다.

열두 칸 표를 인쇄한 그 쪽에, 표를 만든 사람이 「둘뿐」이라고 적어
두었다.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01장 이 편 그 책을 계속 읽는다. 표 바로 위·아래·다음 쪽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

②-1 표를 인쇄한 그 쪽에 ★★★

From the following scheme it will be seen that **the only tenses formed by inflexion are two in number, viz. the Present Indefinite and the Past Indefinite**, Active voice, in the Indicative and Subjunctive moods. **All the other tenses in the Active voice, and all the tenses in the Passive voice without any exception, are formed by means of Auxiliary verbs.**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원서 49쪽

원문 영어

번역

아래의 도식에서 보게 되듯 굴절로 만들어지는 시제는 둘뿐이니, 곧 현재 부정형과 과거 부정형이며, 능동태의 직설법과 가정법에서 그러하다. 능동태의 다른 모든 시제와, 예외 없이 수동태의 모든 시제는 조동사로 만들어진다.

[강조는 인용자]

연결문 — 이 문장 바로 아래가 열두 칸 표다. 곧 저자는 표를 내놓으면서 그 표가 무엇을 표인지를 한정한다.

②-2 상태와 시간을 예문 한 쌍으로 가른다 ★★

Some Intransitive verbs (**Transitive ones never**), and especially those **Intransitive verbs that signify going, coming, becoming, changing, etc.**, may use the Auxiliary **is** instead of *has*, and *was* instead of *had*:

(a) The flower **is** faded. (b) The flower **has** faded.

In (a), however, **the state of the flower (faded) is more prominently indicated**; in (b) **the time of the fading**. So the two sentences are **not quite equivalent**.

번역

어떤 자동사들은 — 타동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특히 가다·오다·되다·변하다 따위를 뜻하는 자동사들이 — has 대신 조동사 **is**를, had 대신 was를 쓸 수 있다.

(가) The flower **is** faded. (나) The flower **has** faded.

다만 (가)에서는 꽃의 「상태」(시들)가 더 두드러지게 가리켜지고, (나)에서는 시들의 「시간」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두 문장은 아주 같지는 않다.

연결문 — § 110의 정의가 묶여 둔 (a)와 (b)가 여기서 예문 한 쌍으로 갈린다. 1898년에 상태와 시간이 갈려 있었다.

②-3 shall · will 이 현재시제의 본동사라고 못 박는다 ★★★

In a command, promise, threat, or intention there is necessarily some sense of futurity. **Nevertheless, the verb shall ... and will ... are in the Present tense, not in the Future. They are simply Notional verbs (Transitive) in the Present tense, and the Infinitive following is their object.**

번역

명령·약속·위협·의향에는 반드시 얼마간 미래의 느낌이 있다. 그럼에도 **shall**과 **will**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제에 있다. 그것들은 그저 현재시제의 「뜻을 가진」 동사(타동사)이고, 뒤따르는 부정사는 그것들의 목적어다.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113

원서 52쪽

원문 영어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115 주

원서 53-54쪽

원문 영어

연결문 — 07장 이 어니언스에게서 읽은 것을 네스필드가 더 세계 적는다.

You shall be hanged의 shall은 현재시제의 타동사다.

②-4 부정사에는 미래가 없다 ★★

The Infinitive may denote either Present or Past time. ... Future time can be expressed *only by some phrase*; as, 'to be about to send'; 'to be going to send'.

Present Continuous ... Passive (*Wanting*) / Past Perf. Contin. ... Passive (*Wanting*)

주의 빈칸의 낱말이 표마다 다르다 — 활용표(원서 50쪽)는 (None), 부정사 표 (§ 123)와 분사 표 (§ 128)는 (Wanting)이다. 같은 책이 둘을 나눠 쓴다. 원본을 눈으로 확인했다. 2026-08-27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123

원서 56쪽

원문 영어

②-5 그리고 미래분사는 없다 ★★

There is no Future Participle in English. Futurity can be expressed by the Qualifying Infinitive, as 'the world **to come**', or by a **periphrasis**, as '**about (prep.) to fall**', '**going to see**', '**going to be beaten**'.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128 주2

원서 59쪽

원문 영어

번역

영어에는 미래분사가 없다. 미래는 한정 부정사로 나타낼 수 있으니 'the world **to come**'(올 세상)이 그렇고, 또는 **에둘러** 쓰는 꼴로 나타내니 '**about**(전치사) **to fall**', '**going to see**', '**going to be beaten**'이 그렇다.

연결문 — 정형동사에만 미래 칸이 있다. 준동사에서는 저자가 두 번 비운다.

②-6 같은 동사가 두 구실을 한다

The same verb may be an **Auxiliary at one time** and a **Principal at another**.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103

원서 45쪽

원문 영어

번역

같은 동사가 어떤 때에는 조동사이고 다른 때에는 본동사일 수 있다.

07장 ②-7 이 그 표를 실었다. 여기서는 그것이 열두칸 표와 나란히 있었다는 사실만 적는다.

②-7 표 안에도 적혀 있다 ★★

수동태 활용표 — 원서 50쪽.

	Indefinite	Continuous	Perfect	Perf. Cont.
현재	am seen	am being seen	have been seen	(None)
과거	was seen	was being seen	had been seen	(None)
미래	shall be seen	(None)	shall have been	(None)

빈칸이 넷이다. 그리고 가정법 표에는 다른 표시가 셋 있다.

Simple Past	Indefinite	(Same as Indicative)
	Continuous	were doing ...
	Perfect	(Same as Indicative)
	Perf. Cont.	(Same as Indicative)

표를 만든 사람이 칸을 다 못 채웠고, 못 채운 자리를 적어 두었다.

②-8 미래완료가 현재의 추론이라고 적는다

It seems like a contradiction to make a *Future* tense have reference to *Past* tense. But the future here implies **an inference** ... ‘You **will have heard**’ means ‘**I infer or believe that you have heard**’.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113(3)
 원서 52쪽

원문 영어

번역

미래시제가 과거시제를 가리키게 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미래는 추론을 함축한다... ‘You will have heard’는 ‘나는 네가 들었으리라고 추론하거나 믿는다’를 뜻한다.

연결문 — 07장 ②-4 가 어니언스 § 202에서 읽은 것과 같은 자리다.

③ 무엇이 잘렸나

③-1 일곱이 잘렸다 ★★★

표는 옮겨졌고, 표를 한정하던 것이 전부 안 옮겨졌다.

무엇이	어디	받는 장
1 굴절 시제는 둘뿐이다	원서 49쪽·표와 같은 쪽	이 장
2 상태와 시간이 같린다	§ 113·52쪽	04장
3 shall · will 은 현재시제 본동사	§ 115 주·53-54쪽	12장
4 같은 동사가 두 구실	§ 103·45쪽	07장
5 부정사에 미래가 없다	§ 123·56쪽	11장
6 미래분사는 없다	§ 128 주2·59쪽	11장
7 빈칸 표시 — (None) 넷· (Same as Indicative) 셋	표 안·50쪽	이 장 + 10장

일곱 가운데 다섯이 3·4부의 주제다. 일곱은 원서 45-59쪽 열다섯 쪽 안에 있고, 그 가운데 둘은 표와 같은 쪽(49·50쪽)에 있다. 이 일곱이 뒤 여러 장의 주제가 된다.

③-2 「둘뿐」과 열두 칸이 어떻게 같이 서나

모순이 아니다. 세는 것이 다르다.

굴절로 만들어지는 시제	둘	write · wrote
조동사로 만들어지는 것	나머지 열	have written · will write · ...
합쳐서 표에 놓으면	열둘	

저자는 둘을 갈라 놓았고, 오늘 교재는 열둘을 나란히 놓는다. 갈라 놓은 줄이 사라지니 열둘이다 같은 종류로 보인다.

그리고 어니언스가 같은 말을 다르게 한다 —

「단순한 것은 둘뿐이고, 그 둘을 둘러싸고 체계가 세워졌다」.

01장 ②-4

두 사람이 같은 셈을 한다.

③-3 빈칸이 채워졌다

원전 (None) 넷 표를 만든 사람이 비웠다
오늘 열두 칸이 다 찬 표 비운 자리가 없다

빈칸이 있다는 것은 「이 격자에 안맞는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빈칸을 지우면 격자가 완전해 보인다.

①권 01장 ⑥-1 이 요구한 「해당 없음 칸」이 1898년 표에 이미 있었다.

①권 23장 5절 의 「단서는 옮겨지지 않는다」가 여기서 표의 칸으로 실물을 얻는다.

③-4 「직설법과 같다」가 사라졌다

가정법 표의 네 칸 가운데 셋이(Same as Indicative)다. 10장 이 어니언스에게서 열 자리로 읽은 것을 네스필드는 표의 칸에 적었다.

그 표시가 사라지니 가정법이 제 형태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③-5 잘린 것들이 한 방향이다 ★

일곱을 늘어놓으면 방향이 보인다.

1 돌뿐이다	}	미래는 시제가 아니다
3 현재시제 본동사이다		
5 부정사에 미래가 없다		
6 미래분사가 없다		
2 상태와 시간이 같린다	I	격자가 두 축의 곱이고 다 안 찬다
7 빈칸이 있다		
4 같은 동사가 두 구실	-	형태로는 못 가린다

우연히 일곱이 잘린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의 것들이 잘렸다. 남은 것은 표다. 표는 셀 수 있고 외울 수 있다.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④-1 한 쪽을 그대로 되살린다

원서 49쪽

굴절로 만들어지는 시제는 둘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조동사로 만들어진다	◀ 잘렸다 ◀ 잘렸다
열두 칸 표	◀ 옮겨졌다

위아래가 한 쪽에 있었다.

④-2 그러면 표가 두 층이 된다

뿌리	write	wrote		굴절·둘
가지	have written	will write	...	조동사·열
	표의 열두 칸			

열두 칸은 나란한 열들이 아니라 뿌리 둘과 가지 열이다.

④-3 그리고 「미래」 줄은 가지 중에서도 다르다

have written	have + 과거분사	조동사가 시제를 만든다	
will write	will + 부정사	조동사가 뜻을 가진 본동사다	§ 115 주

네스필드 자신이 그 줄을 다르게 적었다. 그런데 표에서는 셋째 세로줄로 나란히 서 있다.

표가 저자의 판단을 지운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본문에 있었다.

⑤ 매핑 위의 자리

이 장은 그림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01장 이 옮긴 두 축을 한층 나눈다.

가로	완결의 정도	— 상태 차원	01장
세로	시간	— 시간 차원	01장
그리고 세로줄 셋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다			
	현재 · 과거	굴절	이 장
	미래	조동사 + 뜻을 가진 본동사	

잠정 「미래」를 시간축의 어디에 둘 것인지는 11·12장 이 정한다. 이 장은 그 줄이 다르다는 것까지다.

①권 14장 ④-1 이 will을 「위치 — 앞쪽으로」로 두었다.

이 장이 그 판단에 물음을 건다. 그리고 답은 11장 ⑤가 내고 12장이 갈래를 편다.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⑥-1 표 위에 줄을 하나 긋는다

	단순	진행	완료	완료진행
현재	◀ 여기까지가 굴절			
과거				
미래	◀ 여기부터는 조동사			

표를 지우지 않고 선 하나를 긋는다. 그러면 「시제는 둘」과 「열두칸」이 한 그림 안에서 같이 선다.

⑥-2 빈칸을 되돌린다

수동태에서 안 되는 것 넷을 X로 표시한다

현재완료진행 수동 · 과거완료진행 수동 · 미래진행 수동 · 미래완료진행 수동

「안 되는 칸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학생이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격자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부터 안다.

⑥-3 학생의 물음에 답한다

"영어에 시제가 열두 개예요?"

→ 왼쪽에서 오른쪽 — 시간

- ▶ 형태가 바뀌는 시제는 둘. write / wrote
나머지 열은 조동사로 만든다.
표는 그 둘과 열을 함께 놓은 것이다.

⑥-4 판서 — 1분

write wrote ◀ 굴절. 둘
| |
have · will · be 를 붙여 나머지를 만든다

⑥-5 그리고 이 책의 나머지를 예고한다

이 장은 ②권의 문이므로, 잘린 일곱이 어디서 다뤄지는지를 적어 준다.

잘린 것	어디서
상태와 시간	2부
같은 동사가 두 구실	3부
미래가 시제가 아니다 셋	4부
빈칸과 「직설법과 같다」	3부 끝

⑦ 한 장 요약

열두 칸 표를 인쇄한 그 쪽에, 표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적었다 — 「굴절로 만들어지는 시제는 둘뿐이니, 곧 현재 부정형과 과거 부정형이다.」 나머지는 전부 조동사로 만들어진다고 같은 문단이 적는다.

표는 옮겨졌고 그 문단은 안 옮겨졌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다. 같은 책에서 일곱이 안 옮겨졌다 — 상태와 시간을 가른 예문 한 쌍, shall·will이 현재시제의 본동사라는 주, 부정사에 미래가 없다, 미래분사는 없다, 같은 동사가 두 구실을 한다, 그리고 표 안의 빈칸 넷과 「직설법과 같다」 셋.

일곱은 우연히 잘린 것이 아니다. 넷은 미래가 시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둘은 격자가 두 축의 곱이며 다 차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는 형태로는 못 가린다는 것을 가리킨다. 남은 것은 표다. 표는 셀 수 있고 외울 수 있다.

잘린 일곱이 04·07·10·11·12장의 주제가 되고, 그 다섯 장이 3·4부의 뼈대다.

제 2 부 · 상 을 그 린 다

03

상이란 무엇인가

좌표 상태 차원 · 인용 8개소 · 도해 6점 · 짜임 8

① 교실의 장면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③ 무엇이 잘렸나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⑤ 매핑 위의 자리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⑦ 한장 요약

① 교실의 장면

"선생님,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는 왜 안 돼요?"

"상태동사라서 그래."

"그럼 'I'm loving it' 은요?"

교재가 목록을 준다.

진행형 불가 know believe understand resemble own belong
like love hate want need
그런데 되기도 함 I'm loving it. He is being rude. I'm liking this.

목록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그리고 예외를 만나면 목록이 흔들린다.

목록은 답이 아니라 결과다.

무엇을 재기에 어떤 동사는 되고 어떤 동사는 안 되는지 — 원전에 그
자가 있다.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②-1 어니언스는 단순형과 진행형이 겹친다고 적는다 ★

Observe that the Simple Tenses **coincide partly with the Continuous Tenses, i.e., they may be used to denote the same act or state.** Thus one may say 'I **live** at Oxford' or 'I **am living** at Oxford,' **indifferently**, if one means that Oxford is one's present place of abode. **But, if one wishes to denote a habit**, one generally says 'I **live** at Oxford in winter,' **not** 'I am living at Oxford in winter.'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134

원서 113쪽

원문 영어

번역

단순시제가 진행시제와 **부분적으로 겹친다**는 것을 눈여겨보라. 곧 같은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옥스퍼드가 지금 사는 곳이라는 뜻이라면 I **live** at Oxford라 해도 I **am living** at Oxford라 해도 아무 차이 없이 된다. 그러나 습관을 나타내려 한다면 보통 I **live** at Oxford in winter라 하지 I am living at Oxford in winter라 하지 않는다.

[강조는 인용자]

연결문 — 겹치는 자리가 있고 안 겹치는 자리가 있다. 그리고 가르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려는가다.

②-2 그리고 진행형이 「계속」을 뜻하지 않는 자리를 든다 ★★

The Continuous forms are **sometimes used idiomatically without implying anything ‘continuous’**, e.g. ‘What have you **been doing** to that picture?’, ‘Someone has **been tampering** with this lock’. These are **different from** *have you done, has tampered*; **they give an emotional colouring to the sentence, and express surprise, disgust, impatience, or the like.**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134c

원서 113쪽

원문 영어

번역

진행형은 때로 「계속」을 조금도 함축하지 않은 채 관용적으로 쓰인다. 이를테면 What have you **been doing** to that picture?, Someone has **been tampering** with this lock이 그렇다. 이것들은 have you done·has tampered와 다르며, 문장에 감정의 색을 주어 놀람·역겨움·조바심 따위를 나타낸다.

연결문 — 진행형의 이름은 「계속」인데 계속을 안 뜻하는 자리가 있다. I'm loving it이 그 자리다.

②-3 상태와 행위를 예문 한 쌍으로 가른다

They may express **the state resulting from an action**, as:
The articles **are sold** (= **are in a sold condition**, have been sold).
The letter **is written** at last.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116.2

원서 107쪽

원문 영어

번역

그것들은 행위에서 비롯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를테면 The articles **are sold**(= 팔린 상태에 있다, 팔렸다)·The letter **is written** at last(마침내 그 편지가 쓰인 상태다).

In (a), however, **the *state* of the flower (faded) is more prominently indicated**; in (b) **the *time* of the fading. So the two sentences are not quite equivalent.**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113

원서 52쪽

원문 영어

번역

다만 (가)에서는 꽃의 **상태**(시들)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나)에서는 시들의 **때**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두 문장은 아주 같지는 않다.

연결문 — 두 원문이 같은 것을 예문 한 쌍으로 가른다. 02장 ②-2 「상태」와 「행위·시간」이 같린다는 것이 1898·1911년에 이미 있었다.

②-4 그리고 그 구별이 번역에서 드러난다 ★

This distinction **must be borne in mind when translating ...**

Sentences like ‘**The cherries are sold**’ will be expressed, **according to the meaning intended, in two different ways:—**

1. Latin *Cerasi veneunt* · French *Les cerises se vendent* · German *Die Kirschen werden verkauft*
2. Latin *Cerasi venvērunt* · French *Les cerises sont vendues* · German *Die Kirschen sind verkauft*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116b

원서 107쪽

원문 영어

번역

이 구별은 번역할 때 마음에 두어야 한다. ... **The cherries are sold** 같은 문장은 뜻하려는 바에 따라 두 가지로 나타내어진다.

연결문 — 영어에서 한 꼴인 것이 세 언어에서 두 꼴이다. 형태가 안 가르는 것을 다른 언어가 가른다 — 10장 의 자리가 상에서 다시 선다.

②-5 그리고 오늘의 이론이 그것을 정의로 준다

현행 저작물 · 인용 한도 내 the English Present tense describes a situation that is **not extended on q** and whose aspectual profile **includes the present moment.**

W. Croft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 4.3.1

원서 152쪽

원문 영어

현행 저작물 · 인용 한도 내 The Progressive construction ... alters the aspectual contour to a (transitory) state.

W. Croft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 4.3.2

원서 152쪽

원문 영어

번역

현재시제 — q 위에서 확장되지 않고, 그 상 윤곽이 현재 순간을 포함하는 상황.
진행형 — 상 윤곽을 (일시적) 상태로 바꾼다.

연결문 — q가 무엇인지가 이 장의 열쇠다. Croft에게 q는 질적 상태 (qualitative state)의 축이고, 「변하는가」를 재는 자다.

②-6 그리고 도달과 상태가 한 윤곽의 두 국면이다 ★★

현행 저작물 · 인용 한도 내 · 요지 · 그림 4.5 이 뜻 무리의 문법 형식들은 **도달로 보는 것과 (결과) 상태로 보는 것 사이를 오간다**. 도달과 상태의 이 양면성은 완결이나 유계성의 관점에서는 **어리둥절한 것**이다 — 상태는 유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상 윤곽 위에서 서로 다른 국면을 도드라지게 한 것이다. 그 윤곽을 **방향 있는 상 윤곽**이라 부른다.

W. Cro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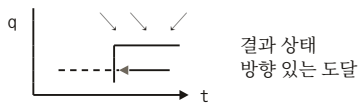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 4.4

원서 170쪽

원문 영어

연결문 — 완료·결과 상태·방향 있는 도달이 한 그림 위의 세 자리다.



—— 동사가 말한다
----- 전치사에 넘긴다
——> 왼쪽에서 오른쪽 — 시간

① 권 15장 이 완료를 「상태선이 지금에 닿는가」로 그렸다.

Croft의 그림 4.5가 그 상태선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인다 — 도달의 끝이다.

두 책이 같은 자리를 다른 이름으로 그렸다.

잠정 그림 4.5는 이 책에 안 싣는다. 현행 저작물이다. 보고 이 책의 부호로 다시 그린 것이 바로 위 그림이고, 그 부호를 확정하는 것은 14장 ⑤다.

③ 무엇이 잘렸나

③-1 자가 없어서 목록이 되었다

원전	무엇을 나타내려는가	를 묻는다	§ 134
오늘	어느 동사인가	를 묻는다	목록

동사로 물으면 예외가 생긴다 — 같은 동사가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He is being rude가 그 자리다.

①권 16장 ④-1 이 「질문 둘」을 세운 까닭이 여기 있다.

동사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문장에 질문을 던진다.

③-2 「겹친다」가 안 옮겨졌다

§ 134는 단순형과 진행형이 부분적으로 겹친다고 적는다. I live at Oxford와 I am living at Oxford가 아무 차이 없이 된다고.

오늘 교재는 둘을 늘 다르게 가르친다. 그래서 학생이 「둘 다 되는」 자리를 만나면 하나가 틀린 줄 안다.

①권 16장 ④-5 가 「겹치는 자리 — 답이 둘인 것이 정상이다」로 달았다.

그 근거가 § 134다.

③-3 「계속을 안 뜻하는 진행형」이 안 옮겨졌다 ★

§ 134c는 진행형이 감정의 색을 준다고 적는다.

What have you done to that picture?	묻는다	
What have you been doing to that picture?	놀라거나 나무란다	§ 134c

오늘 교재는 이것을 「진행형의 특수 용법」이라 하거나 아예 안 다룬다. 그리고 I'm loving it을 광고의 파격이라 설명한다.

파격이 아니라 § 134c가 백 년 전에 적어 둔 갈래의 오늘 예다.

③-4 번역 대조가 사라졌다

§ 116b는 세 언어를 나란히 놓아 두 뜻을 보인다. 영어가 한 꼴로 문장을 다른 언어가 갈라 보인다 — 그것이 그 표의 일이다.

우리가 연 교재에서는 이 대조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The cherries are sold가 왜 모호한지를 못 보인다.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④-1 자를 둘 세운다

①권 16장 ④-1 이 세운 질문 둘이 이 장의 자다.

- | | |
|-----------|--------------|
| ① 변하는가 | ▶ 아니오 가만히 있다 |
| | ▶ 예 ②로 |
| ② 끝점이 있는가 | ▶ 아니오 계속 간다 |
| | ▶ 예 끝나면 달라진다 |

그리고 Croft의 정의가 그 둘을 확인한다.

①권 16장 ④-1

Croft

① 변하는가

q 위에서 확장되는가

② 끝점이 있는가

t 위의 유계성

①권은 Croft를 요지로만 인용하고 질문 둘을 세웠다.

§ 4.3.1이 그 질문을 정의로 준다 — ①권이 세운 것이 원전에 그대로 있다.

④-2 그러면 목록이 필요 없다

I know him.	변하나? 아니오	▶ 진행형 안 된다
He is being rude.	변하나? 예	▶ 된다
— 같은 be 인테 답이 다르다		

동사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문장에서 묻는다. 그래서 He is being rude가 예외가 아니라 당연해진다.

④-3 진행형은 바꾸는 구문이다 ★

§ 4.3.2가 그것을 한 줄로 준다 — 상 윤곽을 (일시적) 상태로 바꾼다.

변하는 것(활동) — 진행형 → 일시적 상태
입력 출력

진행형을 무엇으로 보나

①권 16장 ④-4 「변하는 것만 진행형이 된다」 — 입력을 본다

Croft § 4.3.2 「상 윤곽을 일시적 상태로 바꾼다」 — 변형을 본다

모순이 아니라 층이 다르다. 입력이 변화이고 출력이 상태다. 그러므로 ①권의 판정은 맞고, 왜 그런지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일시적」이 I'm loving it을 푼다 —
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하다는 뜻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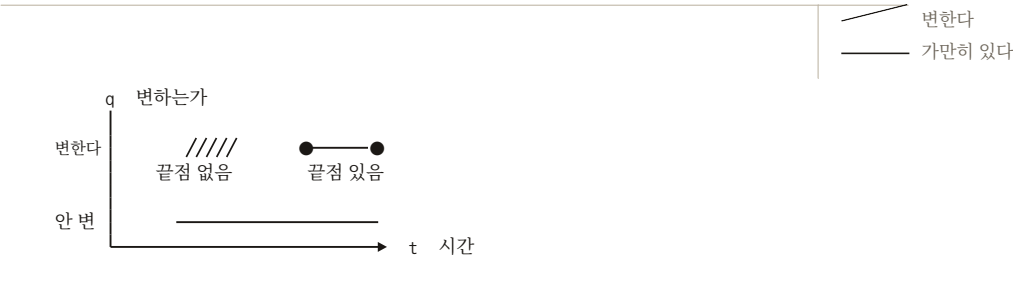
④-4 § 134가 「접침」을 설명한다

I live at Oxford.	지금 사는 곳	▶ 둘 다 된다
I am living at Oxford.	지금 사는 곳	
I live at Oxford in winter.	습관	▶ 진행형은 안 된다

습관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되풀이될 뿐이다. 그래서 질문 ①이 아니라 ④-3의 「일시적인가」가 가른다 — 지금 사는 곳이면 일시적이라 진행형이 되고, 습관은 일시적이지 않다 막힌다.

⑤ 매핑 위의 자리

축이 들어라는 것이 여기서 처음 그림이 된다.



축	무엇을 재 나	질 문
q	변하는가	①
t	끝점이 있는가	②

① 권 의 상태 차원이 여기서 둘로 갈린다.

잠정 이 둘을 한 축으로 접을 수 있는지는 04 장 이 판정한다.
01 장 ⑤ 가 「가로축이 하나인가」 를 물어 두었다.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⑥-1 목록을 지우고 질문 둘을 준다

- ① 변하는가
- ② 끝점이 있는가

두 줄이 열두 칸의 가로축을 다 가른다.

⑥-2 「둘 다 되는 자리」 를 먼저 보인다

I live in Busan.	○		
I am living in Busan.	○	지금 사는 곳이라면 둘 다 된다	§ 134

겹치는 자리를 먼저 보이면 학생이 「하나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권 16장 ⑥-4와 같은 처방이다.

⑥-3 진행형이 「지금 그러하다」임을 말해 준다

He is rude. 그런 사람이다
He is being rude. 지금 그렇게 굴고 있다 일시적 상태

「일시적」한 낱말이 목록의 예외를 다룬다. I'm loving it · I'm liking this · You're being silly.

⑥-4 감정의 색을 아는 자리로 준다

What have you done to that picture? 묻는다
What have you been doing to that picture? 나무란다 § 134c

「계속」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원전이 적었다고 말해 준다.

⑥-5 판서 — 1분 40초

① 변하는가? 아니오 ————— 가만히 있다
 예 → ②로
② 끝점 있나? 아니오 -/////— 계속 간다
 예 -///+— 끝나면 달라진다

①권 21장 D-07을 그대로 쓴다.

⑦ 한 장 요약

진행형이 되는 동사와 안 되는 동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니언스는 단순형과 진행형이 부분적으로 겹친다고 적고, 가르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려는가라고 한다. I live at Oxford와 I am living at Oxford는 아무 차이 없이 되고, 습관을 뜻할 때만 진행형이 막힌다.

그리고 진행형이 「계속」을 조금도 뜻하지 않는 자리도 적어 두었다—What have you **been doing** to that picture?는 감정의 색을 준다. 진행형이 「계속」을 안 뜻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 134c가 백 년 전에 적어 두었다. I'm loving it은 그 갈래의 오늘 예이고, 그것을 푸는 것은 ④-3의 「일시적 상태」다.

재는 자는 둘이다—변하는가(q)와 끝점이 있는가(t). ①권이 세운 질문 둘이 Croft의 정의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진행형은 상 윤곽을 일시적 상태로 바꾸는 구문이므로, 입력은 변화이고 출력은 상태다. 「일시적」한 낱말이 목록의 예외를 다 푼다.

영어가 한 꼴로 뭉개진 것을 라틴어·프랑스어·독일어는 두 꼴로 가른다.

어니언스가 그 표를 § 116b에 실어 두었다.

제 2 부 · 상 을 그 린 다

04

두 차원은 수직이다

좌표 시간 ↔ 상태 · 인용 7개소 · 도해 6점 · 짜임 8

① 교실의 장면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③ 무엇이 잘렸나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⑤ 매핑 위의 자리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⑦ 한장 요약

① 교실의 장면

"선생님, 완료진행은 완료 더하기 진행이예요?"
 "응, 완료의 뜻과 진행의 뜻을 다 갖는 거야."
 "그럼 단순은 뭘 더한 거예요?"
 "..."

넷가운데 하나만 「더하기」 다.

단순	Indefinite	무엇의 합인가?
진행	Continuous	
완료	Perfect	
완료진행	Perfect Continuous	◀ 앞 둘의 합

넷이 고르지 않다. 셋은 홀이고 하나는 짝이다. 그런데 표에서는 넷이 나란한 칸이다.

넷이 고르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다.
 가로가 축이 아니라 평면이기 때문이다.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②-1 네스필드가 그것을 적어 두었다

IV. Perfect Continuous; which combines the meanings of the two preceding forms.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111
 원서 49쪽

원문 영어

번역

IV 완료계속. 앞 두 형태의 뜻을 합친 것.

[강조는 인용자]

연결문 — 저자가 넷째만 「합친 것」 이라 적는다. 넷이 나란한 넷이 아니라 셋과 그 조합이다.

②-2 그리고 첫째는 「정해 두지 않는다」 다 ★

I. Indefinite; which denotes Present, Past, or Future time in its simplest form; **the degree of completeness is left indefinite.**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III

원서 48쪽

원문 영어

번역

I 부정. 현재·과거·미래를 가장 단순한 꼴로 나타내며, **완결의 정도는 정해 두지 않는다.**

연결문 — 첫째는 값이 아니라 「값 없음」이다.

I	값이 없다	완결의 정도를 정해 두지 않는다
II	값 하나	안 끝났다
III	값 하나	끝났다
IV	값 둘의 합	II + III

넷이 한 축의 네 눈금이 아니다.

②-3 그리고 오늘의 이론이 그것을 축의 문제로 말한다

현행 저작물 · 인용 한도 내 · 요지 시제(지시적 시간 참조)와 상(사건이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방식)의 전통적 구분은 **경험적으로 타당하다**(*empirically valid*).

W. Croft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 4.2.3

원서 137쪽

원문 영어

현행 저작물 · 인용 한도 내 · 요지 상 차원은 시간 차원에 수직(*perpendicular*)으로 도상화된다. 곧 시간-양태 차원(*temporal-modal dimension*)처럼 —

W. Croft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 4.2.4

원서 139쪽

원문 영어

연결문 — 1898년의 정의가 묶은 둘이 여기서 「수직인 두 차원」이 된다.

01장 ②-1 이든 정의의 (a)와 (b)다.

②-4 그리고 상안쪽에 축이 하나 더 있다 ★★

현행 저작물 · 인용 한도 내 a situation that is **not extended on q**

W. Croft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 4.3.1

원서 152쪽

원문 영어

연결문 — **q**. 시간(**t**)이 아닌 또 하나의 축이 있다는 것이 **정의 안에 낱말로 들어 있다**.

그리고 저자가 **그 두 축을 그림으로 준다**(그림 2.1·원서 53쪽) — 가로가 **t**, 세로가 **q**이고, see는 **q** 위에 **점이 둘뿐**이라 계단 모양이 된다.

아래 ④-2의 사분면은 이 책이 그린 것이다. 원전의 그림은 **한 문장의 윤곽**을 그리고,
이 책의 사분면은 **네 갈래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그린다. **층이 다르다**.

03장 ⑤ 가그 둘을 세웠다 — **q**는 「변하는가」, **t**는 「끝점이 있는가」.

②-5 어니언스도 「상태」와 「시간」을 갈랐다

They may express **the state resulting from an action ...** *The articles **are sold*** (= **are in a sold condition**, have been sold).

C. T. Onions

An Advanced English Syntax

§ 116.2

원서 107쪽

원문 영어

In (a), however, **the state** of the flower (faded) is more prominently indicated; in (b) **the time** of the fading.

J. C. Nesfield

Manual of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 113

원서 52쪽

원문 영어

번역

그것들은 **행위에서 비롯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The articles **are sold*** (= 팔린 상태에 있다, 팔려 왔다).

다만(가)에서는 꽃의 **상태**(시들었음)가 더 두드러지게 표시되고, (나)에서는 시들의 **때**가 그렇다.

연결문 — 03장 ②-3 이 든 그 짝이다. 두 원전이 「상태」와 「시간」을
갈랐고, 그것이 곧 **q**와 **t**다.

③ 무엇이 잘렸나

③-1 「합친 것」이라는 말이 안 옮겨졌다

원전 IV 는 앞 둘의 뜻을 합친 것이다 § 111
오늘 완료진행 — 넷째 칸

말이 사라지면 넷이 나란해진다. 그리고 나란해지면 「단순은 무엇의 합인가」를 물을 수 없다.

③-2 「정해 두지 않는다」가 안 옮겨졌다 ★

Indefinite는 「부정(不定(부정))」이다 — 값이 없다는 뜻이다. 오늘 교재는 그것을 「단순」이라 부른다.

첫째 칸의 이름

네스필드 § 111 Indefinite — 완결의 정도를 정해 두지 않는다

오늘 교재 단순 — 다른 것을 안 붙인 꼴

「단순」은 형태의 이름이고 「부정」은 뜻의 이름이다. 뜻의 이름이 형태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축이 사라졌다.

①권 07장 의 **층위 이동**이다. ①권 07장 ④-1

그리고 이번 것은 **번역어가 아니라 영어 안에서** 일어났다.

③-3 그래서 가로가 축처럼 보인다

원전이 준 것 값 없음 · 값 하나 · 값 하나 · 값 둘의 합
 표가 보이는 것 ● ● ● ● 네 눈금

네 칸이 나란히 있으면 하나의 자에 네 눈금이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자가 둘이다.

③-4 「수직」이 안 옮겨졌다

1898년의 정의는 (a)와 (b)를 「또는」으로 묶었다. 2012년의 실측은 그들이 「수직」이라고 한다.

또는	둘 중 하나를 가리킨다	§ 110
수직	둘이 서로 무관하게 값을 갖는다	§ 4.2.4

「또는」과 「수직」은 다르다. 수직이면 두 값을 동시에 가진다—그것이 표가 열두 칸인 진짜 까닭이다.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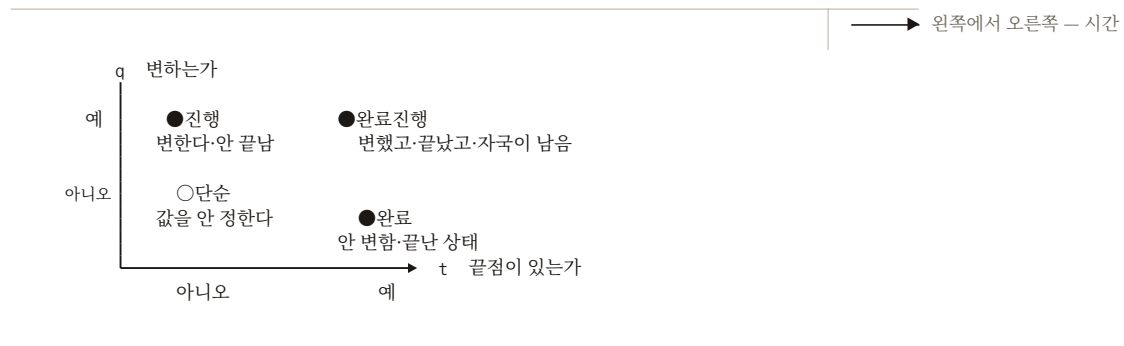
④-1 물음에 답한다—가로축은 하나가 아니다 ★★★

01장 ⑤가 물었다—표의 가로축이 정말 하나인가.

답 — 아니다. 가로는 축이 아니라 평면이다.

q (변하는가)와 t (끝점이 있는가)가 그 평면의 두 축이고, 넷은 그 평면 위의 네 자리다.

④-2 넷을 평면에 놓는다



셋이 사분면에 놓고 하나는 원점에 놓인다. 「단순」만 빈 동그라미(○)다 — 답을 「아니오」로 한 것이 아니라 답을 안 한 것이므로 두 축 어느 쪽에도 값이 없다. 그래서 문맥이 값을 정하면 네 자리 어디로도 읽힌다 — I know him처럼 안 변하고 끝점도 없는 자리까지 넷이다.

이것이 「합친 것」이 하나뿐인 까닭이다.

완료진행만 두 축이다 「예」다.

④-3 그러면 열두 칸이 다시 읽힌다

시간 (t 지시)	— 과거 · 지금 · 앞으로	세로 세 줄
상 (q × t)	— 네 자리	가로 네 칸
$3 \times 4 = 12$	두 층이 곱해진 것이다	

세로는 축 하나이고 가로는 평면 하나다. 곱셈이 「축 × 축」이 아니라 「축 × 평면」이다.

01장 ④-1이 「셋 × 넷」을 되돌렸다.

여기서 그 넷이 무엇인지가 밝혀진다.

④-4 그리고 시간 축이 두 번 나온다 ★

t가 두 자리에 있다.

세로의 시간	지시적 시간 참조	언제 일어났나	과거 · 현재 · 미래
가로 속의 t	유계성	끝점이 있나	상 안쪽

같은 「시간」이라는 말이 두 층에서 다른 일을 한다. 그래서 학생이 「현재완료는 현재인가 과거인가」를 묻는다—세로로는 현재이고 가로 속의 t로는 끝났다.

①권 15장 이 완료를 「상태선이 지금에 닿는가」로 그린 까닭이
여기 있다.

세로의 시간과 가로 속의 시간을 한 그림에 놓은 것이다.

⑤ 매핑 위의 자리

①권 의 세 차원 가운데 상태 차원이 여기서 둘로 갈린다.

①권	이 장
시간 차원	그대로 — 지시적 시간
상태 차원	<code>q</code> + <code>class="chip">t</code> — 평면이다
인과 차원	그대로

- ①권 세 차원 + 하나의 선택
- ②권 세 차원 가운데 하나가 평면이다

차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접혀 있던 것이 펴진 것이다.

①권이 틀린 것이 아니다. ①권은 축1과 축3을 다루었고

상태 차원은 「질문 둘」로만 열어 두었다. ①권 16장 ④-1

질문이 둘이었다는 것이 이미 평면이라는 표시였다.

⑥-5 가 그 평면을 1분 40초에 그린다—판서 3분 안이다. 다만 거기에 무엇이 안
담기지는 05장 이 켜다.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⑥-1 가로를 축이 아니라 자리로 그린다

전	단순 - 진행 - 완료 - 완료진행	한 줄
후	네 자리를 사분면에	두 축

한 줄로 그리면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분면으로 그리면 「두 질문의 답 조합」이 된다.

⑥-2 「단순」을 「안정함」으로 읽어 준다

Indefinite = 완결의 정도를 정해 두지 않았다

그러면 I go to school이 왜 습관도 되고 진리도 되고 예정도 되는지가 풀린다. 정해 두지 않았으니 문맥이 정한다.

⑥-3 「현재완료는 현재인가」에 답한다 ★

세로로는	현재	지금 자리에서 본다
가로 속에서는	끝났다	끝점이 있다

둘 다다. 층이 다르다.

학생의 물음이 정확했다. 「시간」이라는 말이 두 층에서 쓰이고 있다.

⑥-4 완료진행만 「합친 것」임을 말해 준다

진행	변한다 · 안 끝났다
완료	끝났다 · 자국이 남았다
완료진행	둘 다
단순	둘 다 안 정했다

넷이 고르지 않은 까닭을 말해 주면 표가 외울 것에서 셀 것이 된다.

⑥-5 판서 — 1분 40초

변하나

진행 ●	● 완료진행
단순 ○	● 완료

끝점

○ 은 값을 안 정한 것

잠정

도해 번호는 아직 안 붙였다. 전권이 다 썼고 쪽도 정해졌다 — 부록 C-5 .

⑦ 한 장 요약

열두 칸 표의 가로는 축이 아니라 평면이다.

네스필드가 그것을 두 자리에 적어 두었다 — 넷째만 「앞 둘의 뜻을 합친 것」 이고, 첫째는 「완결의 정도를 정해 두지 않는다」 다. 셋은 홀이고 하나는 겹이고 하나는 값이 없다. 나란한 넷이 아니다.

그리고 2012년의 실측이 그것을 축의 문제로 말한다 — 상 차원은 시간 차원에 수직 이고, 상 안쪽에는 q 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다. 03장 이 세운 질문 둘이 그 두 축이다 — 변하는가(q)와 끝점이 있는가(t).

그러면 넷이 사분면의 네 자리가 되고, 「단순」이 원점 쪽에 놓인다. 어느 값도 안 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곱셈이 「축 $\times$ 축」이 아니라 「축 $\times$ 평면」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말이 두 층에서 쓰인다 — 세로의 시간은 언제이고 가로 속의 t 는 끝점이다. 「현재완료는 현재인가 과거인가」라는 물음이 정확했던 까닭이 거기 있다.

① 권은 상태 차원을 「질문 둘」로 열어 두었다.

질문이 둘이었다는 것이 이미 평면이라는 표시였다.

제 2 부 · 상 을 그 린 다

05

도해는 단순화인가 필요충분인가

좌표 방법 · 인용 4개소 · 도해 3점 · 짜임 10

① 교실의 장면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③ 무엇이 잘렸나

④ 흐름으로 다시 쓰기—재기

⑤ 매핑 위의 자리—판정

⑥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나

⑦ 한장 요약

① 교실의 장면

03장 이 목록을 지우고 질문 둘을 주었다.

- ① 변하는가
- ② 끝점이 있는가

교실에서 이것으로 충분한가.

The door is open.	변하나? 아니오 · 끝점? ...
She is French.	변하나? 아니오 · 끝점? ...
The sun is at its zenith.	변하나? 아니오 · 끝점? ...

셋다같은 칸에 들어간다. 그런데 셋은 같지 않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은 답힐 수 있고, 프랑스인인 것은 그럴 수 없고, 해가 중천에 있는 것은 한순간이다.

질문 둘이 셋을 한 칸으로 뭉갬다.
이 장은 그 뭉갬이 얼마나 큰지를 잔다.

② 원전은 이렇게 말했다

②-1 두 차원이 무엇인지 ★

현행 저작물 · 인용 한도 내 events are represented in two dimensions, time (t) and qualitative states (q) ... in the 2000 version of this book ... the second dimension was described as a change dimension represented by Δ .

W. Croft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 2.3.2

원서 53쪽

원문 영어

번역

사건은 두 차원, 곧 시간(t)과 질적 상태(q)로 표상된다... 이 책의 2000년판에서는 그 둘째 차원을 변화 차원 Δ 로 기술했다.

[강조는 인용자]

연결문 — q의 옛 이름이 「변화 차원」이다. ①권 16장 ④-1의 첫째 질문이 「변하는가」였다. 이름이 같다.

②-2 그런데 q는 연속이 아닐 수 있다 ★★★

현행 저작물 · 인용 한도 내 The time dimension is **continuous**. The qualitative state dimension **may or may not be continuous**, depending on **what qualitative states are defined for the event** ... seeing has only two defined states on q ... the q dimension for seeing **consists of only two points**.

W. Croft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 2.3.2

원서 53쪽

원문 영어

번역

시간 차원은 연속이다. 질적 상태 차원은 연속일 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그 사건에 어떤 질적 상태들이 정의되어 있는가에 달렸다 ... see는 q 위에 정의된 상태가 둘뿐이고 ... q 차원은 두 점으로만 이루어진다.

연결문 — q는 「예/아니오」가 아니라 「몇 점인가」다. 동사마다 점의 수가 다르다.

②-3 그리고 「상태」 하나가 넷으로 갈린다 ★★★

현행 저작물 · 인용 한도 내 · 그림 2.3의 네 예문

The door is open. · The window is shattered. · She is French. ·

The sun is at its zenith.

The first type is a **transitory (stage-level)** state, while the second and third are **permanent (object-level)** states. ... **Inherent states are true of the entity for its entire lifetime. Acquired permanent states are true ... once the state has been acquired.**

W. Croft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 2.3.2

원서 58쪽

원문 영어

번역

첫째는 일시적(무대 층위) 상태이고, 둘째와 셋째는 영구적(대상 층위) 상태다. ... 내재적 상태는 그 개체의 온 생애에 걸쳐 참이다. 획득된 영구 상태는 그 상태를 얻은 뒤로 참이다.

연결문 — 넷을 가르는 것은 「시작이 있나」와 「끝이 있나」다.